논어 12편 안연 2장 · 원문·풀이

仲弓問「仁」。子曰：「出門如見大賓，使民如承大祭，己所不欲，勿施於人。在邦無怨，在家無怨。」仲弓曰：「雍雖不敏，請事斯語矣！」

독음 · 중궁문인 자왈 출문여견대빈 사민여승대제 기소불욕 물시어인 재방무원 재가무원 중궁왈 옹수불민 청사사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밖에서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,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 공경하라.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원망을 줄일 수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仲 버금 중 중 / 弓 활 궁 궁 / 問 물을 문 문 / 仁 어질 인 인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出 날 출 출 / 門 문 문 문

如 같을 여 여 / 見 볼 견 견 / 大 클 대 대 / 賓 손 빈 빈

使 하여금 사 사 / 民 백성 민 민 / 承 받들 승 승 / 祭 제사 제 제

己 자기 기 기 / 所 바 소 소 / 不 아닐 불 / 欲 욕심낼 욕 욕

勿 말 물 물 / 施 베풀 시 시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人 사람 인

在 있을 재 재 / 邦 나라 방 방 / 無 없을 무 무 / 怨 원망할 원 원

家 집 가 가 / 雍 조화로울 옹 옹 / 雖 비록 수 수 / 敏 민첩할 민 민

請 청할 청 청 / 事 일 사 사 / 斯 이 사 사 / 語 말씀 어 어

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